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당신도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여러분은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아니면 말솜씨가 없다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이나 하는 일까지 다 드러내는 경우는 흔하지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장소와 해서는 안 될 장소 등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못하고 '개소리피소리' 하는 사람은 어떤 모임이든 환영받을 수 없을 테지요. 살다보면 '객쩍은' 말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언어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세요.

개소리피소리 : 개 짖는 소리와 고양이 우는 소리라는 뜻으로, 조리 없이 되는대로 마구 지껄이는 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에요. '개'는 중세 국어에서 고양이를 뜻하던 단어죠. 고양이는 '괴'에 접미사 '-양'이 결합된 단어랍니다.

개호주 : 범의 새끼. (김 승지로 본다면 상상사람들은 토끼요. 중인이 개호주라면 자기는 호랑이로 이 산중에서 웅당 호랑이 노릇을 해야겠는데...)(이무영 <농민>)

객쩍다 :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상경다.(객쩍은 소리 그만 두어요. 그 따위 실없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염상삼 <삼대>)

거나하다 : 숲 따위에 취한 그 기운이 몸에 들기 시작하는 상태에 있다. (술잔이 번번히 돌아오는 바람에 나는 거나하게 취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몽고메리 작 '빨간 머리 앤'

자신의 행복을 주변에 전염시키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행복한 곳이 되겠지요? 혹은 어떤 존재인지 '빨간 머리 앤'과 비교해보면서 이 소설을 읽어보세요. 행복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캐나다 동쪽 끝의 작은 섬 에이번리란 이름의 작은 마을. 초여름이던 어느 날 고아원에서 앤이라는 이름의 붉은 머리 소녀가 온다. 이야기는 그날 저녁 소녀가 살게 될 그린 게이브루스라고 불리는 쿠스바트 집안의 나이 든 오누이가 크게 놀라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슈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오누이는 두 사람 다 미혼으로, 농장 일을 거들 남자를 한 사람 고아원에서 데려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사소한 착오로 고아원에서 온 아이는 남자가 아니라 새빨간 머리카락을 가진 앤이라는 여자 아이였던 것이다. 마리아는 애당초 그러한 착오가 벌어진 데에 대해 화를 내며 아이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내가 필요 없는 거야. 남자 애가 아니거든. 역시 생각해 대보지. 지금까지 나를 탐내는 사람은 없었거든. 너무나도 행복해서 오래 계속될 리가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필요해서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차린 소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뭐, 지금 곧 나가려는 건 아니니까"하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소녀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콜레리아라고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콜레리아라고 불러 달라고? 그게 네 이름이냐?" "아뇨, 제 이름은 아니지만 콜레리아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주 맛있는 이름이니까요."

그런 엉뚱한 대화가 끝나고 나자 마리아는 소녀

자신의 재능 마음껏 펼치는 어엿한 소녀의 성장기 내용

에게 앤지 모를 애정과 연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오후 마슈는 처음부터 앤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해서 앤은 그린 게이브루스의 딸이 되었다. 그리고 마슈와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며 자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불리는 에이번리 마을에서 소녀는 영리하고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해 간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고아원까지 가게 된 이 소녀는 지독한 애정 결핍 증을 보이기도 했지만, 타고난 쾌활함과 자유분방한 상상력만은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앤은 자신의 붉은 머리카락에 대해서 적지 않게 걱정스러워했다. 에이번리의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길버트 브라이스와 15세가 될 때까지 절

교 상태에 있었던 것도 그가 앤을 흉당무라고 부른 때문이었다. 앤의 학교 성적은 길버트와 늘 수석을 다투며 만렙이었다. 마슈와 마리아는 그런 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꼈던 매력의 이 소녀가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한편 앤의 재능을 인정한 시골 학교의 선생님은 앤에게 상급학교 진학을 권한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지내는 동안 앤은 소녀에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고 있었다. 1년의 교육 과정을 마친 앤은 높은 마슈와 마리아가 기다리는 그린 게이브루스로 돌아온다. 그리고 마슈가 심장 마비로 죽는다. 앤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다시 상급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앤은 혼자 남은 마리아와 함께 에이번리에 남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어렸을 때에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길버트와도 친구 사이를 넘어 은근한 사랑의 싹을 틔워가고 있었다.

<빨간 머리 앤>은 한 고아 소녀가 아름다운 경치와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며 여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소녀의 언행을 중심으로 그린 소설이에요. <빨간 머리 앤>은 작가 몽고메리가 이름도 없는 문학 소녀였을 때 심심풀이로 쓴 자전적 회상기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해요.

작가가 출판물 염두에 두지 않고 보낸 이 소설이 책으로 발견되자 그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당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e-메일:rolling@paran.com)

별명이 산만이에요!

(ID:글화사 산만이)

자기 자신을 더 인정해주세요 고요해진 나를 발견할 거예요

▶ 흐트러졌을 때 다시 새로운 마음을 내어 보세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놓자. 또는 에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열린 마음 기울여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틀이 좁아짐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조금씩 서서히 변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산만이라고 주문을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내가 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또 나 자신이 더 좋은 변화를 보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니까 생각부터 '나는 자분하다'라고 해보세요. 한층 더 고요해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투리 시간? 그게 잘 활용하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 맞아요. '나는 산만이에요'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산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지요? '나는 자분이에요'라고 말해 보세요. 달라진 자신을 느낄 겁니다.^^

▶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당연한 고민이죠. 누구든 할 수 있는 고민이요. 지금 공부를 더 많이, 잘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자투리 시간이 낮을 때 눈을 감고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해 보세요. 한결 그 다음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랍니다.

▶ 우리 법우님.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변화에 도전해 보세요. 차분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든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해 주세요. 화이팅!

(글화사법우님들 댓글 모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1) 아리스토텔레스 사립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이란 학문을 통해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여기 삼단논법이 있습니다. 1. 모든 사람은 죽는다. 2.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3.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책은 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佛心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 ❸ 출시!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어 놓은 발도 공공거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풀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축문상(千福輪相)과 만트라 ❸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가격 98,000원

라꾸라꾸 침대 접이식 라꾸라꾸 온열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활용성과 경제적인 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가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강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였는가를 하는 점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제품은 매트와 재질을 항균, 방취처리를 하여 매우 위생적이며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온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 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138,000원 2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모기, 깔다구, 날벌레 꼼짝마!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아해성 날벌레로 고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으로 살이 짓무르거나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에서는 손님방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향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여간 스트레스를 입지 않는다.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비전전자에서는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 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꿔주면 절전은 물론 반경 3~4m에는 야간해충이 얼씬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사할, 공원, 식당, 가든, 펜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보기도 좋아 야간조명등으로도 효과적이다. 가격은 20W는 22,000원, 45W는 48,000원에 특별보급하고 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옷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숙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내용량 : 1박스(80ml x 60포) 2개월분 *1박스(1.5L) *구입엔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기술이 뛰어난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